세 절의 수행향기 '무언의 설법'

◇현대불교 구산선문 참선기행단 불자들은 사불산 대승사에서 아침예불을 올리고 참선정진을 했다.

◇김용사 해운암 전경(사진위)과 비구니 선도량 윤필암.

9월 대승사 윤필암 김용사

구산선문 참선기행

김용사 성철·서옹·서암등 3종정 배출
대승사 선원 금동관음상 참배 '환희심'
윤필암 비구니 수행처…30여명 정진

9월 구산선문 참선기행단은 천년 선덕이 살아있는 희양산파의 종찰 봉암사기행을 포기해야 했다. 봉암사는 비공개 특별수행도량인데 공식 참구에 대한 인식차이로 예정대로 진행할수 없었기 때문이다.

대승사로 들어가는 길목에는 어디선가 들려오는 계곡물소리가 반갑게 맞이했다. 물소리는 어느덧 목탁소리로 바뀌고 새벽 3시 30분 법당에선 스님들이 새벽예불을 드리고 있다. 54명의 참선기행단은 부처님전에 삼배를 드리고 참선정진에 참가했다.

동이 터오자 산자락에 머물던 구름이 절밑의 송림을 지나 대승사로 넘실넘실 올라온다.

587년 어느날 사불산(913m) 산마루에 사방을 비단으로 감싼 바위가 하나 하늘에서 떨어졌는데 괴쳐보니 사방에 여래상이 새겨져 있었다고 한다. 신라 진평왕이 현장을 살펴보고는 감탄한 나머지 대승사를 짓도록 했다는 '삼국유사'의 기록에 걸맞다.

대승사는 사불산 분지에 한폭의 그림같이 아늑하게 안겨 있었다. 하늘에서 내려온 부처님을 떠받드는 연꽃을 땅에서 피게한 대승사에는 대웅전에 보물 제575호 목각탱이 있다. 이 목각탱은 원래 부석사 무량수전 후불탱으로 국내 현존 6개 목각탱중 하나다.

아침공양을 마친 불자들은 대웅전에서 주지 탄공스님에게 대승사의 창건유래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개산조인 망명(亡名)스님은 늘 묘법연화경을 외우고 다녔는데 어느날 한밤중에 괴이한 빛이 넘치는 지라, 자세히 보니 망명스님의 입에서 나오는 빛이었다. 이 일이 있고 나서 소문이 서라벌까지 번져 진평왕이 비구 망명에게 청하여 대승사 주지로 삼아 대승사의 발칭돌을 깨끗히 씻어 향불을 끊이지 않게 했다고 한다.

대웅전 옆에는 선원이 있는데 올해 하안거에 27명의 수행납자가 안거를 났다고 한다. 선원장스님의 특별배려로 참가자들은 선원에 들어가 그동안 일반에 공개되지 않은 금동관음보살좌상(보물 제991호)에 참배하였다. 이 기회에 대승사 신도들도 함께 참배했는데, 포항의 한 거사는 3년간 대승사를 다녔지만 선원에 들어가기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기뻐했다.

참가자들은 총무 현광스님으로부터 좌선하는 자세와 마음가짐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듣고 불국사 조실 월산스님이 기거했다는 선방에서 참선의 시간을 가졌다.

대승사에서 측면으로 500m 거리에 있는 윤필암은 비구니 선도량이다. 암자뒤 수려한 암봉들이 병풍을 치듯이 둘러져 있는 곳에 자리한 윤필암에는 30여명의 비구니스님들이 정진하고 있다. 왼쪽으로난 돌층계를 밟고 올라가면 바위위에 법당인 사불전이 있는데 부처님은 모셔져 있지않고 저멀리 유리창너머로 산마루에 사면불이 한눈에 들어온다. 공덕산 사면불은 커다란 반석위에 바로선 높이 3.4m에 이르는 장방형 바위 동서남북 4면에 새겨져 있으며 동서면은 좌상이고 남북면은 입상이다. 사불전과 가불암은 절묘한 조화를 이뤄 신비감을 더해줬다.

대승사에서 남서쪽으로 운달산(1,099m) 남쪽기슭에 앉아있는 김용사(주지 자광)는 고색창연한 향내를 자아내고 있다. 원래 31본산의 하나였던 김용사는 한때 경북 북부지역의 46개 사찰을 관장했었다. 본지 사고에 안내를 맡기로한 주지 자광스님은 당초 김용사에 대한 안내였다. 봉암사 참배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었는데 오해를 불러일으켜 스님께 죄송했다.

김용사 대웅전은 1649년에 설잠대사가 조성한 건물로 목조석가여래와 약사여래, 아미타여래 삼존불을 모시고 있다. 내부의 단청이 대단히 화려한데 천정에는 온갖악기를 연주하는 주악비천상의 자태가 아름답다. 또 괘불은 10m로 대형인데 주존불이 중앙에 곽차도록 자리잡고 있으며 양옆으로 협시보살과 사천왕이 둘러싸고 있고 바깥쪽으로 10대제자, 인왕, 광부중이 줄을 선듯한 모습으로 둘러서 있다. 근대에 들어 조계종 종정을 역임한 성철 서옹 서암 스님을 배출한 성지로도 이름높다.

김용사는 옛사격의 복원을 염원하며 60평이나 되는 국내최대 온돌방의 복구공사, 설선당, 해운암 등 3개의 당우를 건립하고 있다.

김원우 기자 (wwkim@buddhapia.com)

죄송합니다

희양산문 봉암사 '구산선문 참선기행' 진행이 공식참구에 대한 인식차이로 원만치 못했습니다. 앞으로 3회 남은 구산선문 참선기행을 더 알차게 진행하겠습니다.

현대불교신문사

우·리·절·에 도서실을 만듭시다

도서를 구입하고 정리가 다 됐다면 도서실 문을 열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차례다. 문을 열기에 앞서 한가지 점검해야 할 사항이 있다. 고객들이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돼 있는가 재점검하는 일이다. 많은 예산과 시간을 들여 도서실을 개관했는데 이용이 원활치 않다면 허사로 돌아가기 십상이기 때문이다.

신도 늘 찾게 평일 개방

운영방법

이용 쉽게 개가식 열람
주부불자 돌아가며 봉사

사찰도서실 도서 열람방법은 신도들이 원하는 책을 마음대로 볼 수 있도록 하는 개가식이어야 한다. 특히 정기법회나 일요일에는 신도들이 도서실을 가장 많이 찾기 때문에 이를 잘 활용해야 한다. 평일에 신도들이 드물게 찾는다고 문을 닫아서는 안된다. 오히려 이 '틈새시간'을 잘 활용해야 한다. 이때 찾아오는 신도들의 경우 '알짜 고객'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무작정 도서실을 찾는 경우보다 불교를 심층적으로 알기위해 찾아오는 신도일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도서실을 운영하는 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관리자 문제다. 전문사서를 둘 경우 여러측면에서 유리한 점이 있지만 대부분 사찰이 여건상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특히 정기법회 날에는 한사람의 관리만으로는 힘에 벅차다. 종무원들이 돌아가며 도서의 대출과 반납업무를 보게 하는 것도 괜찮다. 또 각 신행단체들에게 책임감을 부여해주면 열린 도서관이 될 수 있는 장점도 있다. 의미있는 일거리를 못찾는 주부불자들에게 맡기는 것도 유익한 봉사활동이 될 수 있다. 주지스님은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사찰의 모든 구성원들이 도서관 만들기 뿐만 아니라 운영에서도 주요한 협력주체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이끌어야 한다. 단순히 도서실을 개관했다는 것에서 만족해 운영적인 측면을 소홀히 한다면 그 도서실은 살아나기 어렵다.

도서대출은 가능하면 1인 1책으로 하고 기간은 1주일이 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다. 너무 많은 책을 대출해주거나, 대출기간이 길면 도서관리에 폐단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빠른시간에 독서를 하고 도서실을 자주 찾을 수 있도록 유도해 친숙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밖에도 사보나 게시판을 활용한 도서실 이용 안내, 도서 전산화, 신간도서 소개, 다독자 및 우수도서실 이용자 표창 등 다양한 행사로, 늘 열려 있는 부처님 품처럼 도서실을 만드는 것도 운영의 묘안 가운데 하나일 것이다.

김종근 기자(gamja@buddhapia.com)

신도간 대화 활발…'공부하는 사찰'

모범 도서관 운영 칠곡 망월사

불서 4백권…신도들 책기증
오·비디오테이프 100종 '인기'

◇망월사 도서실을 찾은 신도들이 불서를 고르고 있는 모습.

경북 칠곡 망월사(주지 동진)는 사찰도서관 만들기에 앞장서고 있는 사찰중의 하나다.

망월사가 신도들을 위한 미니도서관을 개관한 것은 지난 98년 1월. 4백여 권의 불서와 100여종의 오디오 및 비디오 테이프를 갖추고 대여를 시작했다. 음력 초하루 및 보름법회만으로는 신도교화가 어렵다고 판단, 신도들의 자질향상과 지적욕구 충족을 위해 도서관을 개관하게 된 것. 기초교리, 역사, 고승전, 경전, 수필 등 다양한 분야의 책과 테이프들은 동진스님이 광소 법회준비를 위해 모아놓은 자료들이 토대가 됐다.

서적은 봄가을에 대출이 활발한 반면 테이프는 꾸준히 대여가 되고 있으며 신간도서 구입은 두달에 한 번 정도로 이뤄지고 있다. 최근에는 신도들이 혼자서만 보지않고 여럿이 둘러가며 본다고 책을 기증하는 사례도 늘고있다.

도서관장을 맡고있는 이혜원행보살(45)은 "책이 매개체가 되어 신도들간에 대화가 활발해지는 등 신행활성화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며 "그러나 인기 있는 책만을 골라보는 태도는 고쳐 나가야 할 점"이라고 말했다.

망월사는 법회가 끝난 후 경내에서 다담(茶談)을 나누거나, 책을 읽거나 탑돌이 등을 할 수 있도록 사찰분위기를 쇄신할 계획으로 있다. 즉 법회만 끝나면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내집처럼 편안하게 이야기도 하고 책을 읽는 분위기를 조성한다는 것. 이를 위해 신도들이 앉아서 책을 읽을 수 있도록 열람실을 마련하고 불교잡지나 신문 진열대도 갖춘다는 구상이다.

동진스님은 "공부하는 사찰분위기를 조성하여 성숙된 신앙인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0545)972-2700

이윤호 기자(yhlee@buddhapia.com)

장엄도량을 이루는 모든 것

태영산업이 함께 하겠습니다.

◐ 규격간판(도로지주용 간판) 허가 대행, 제작, 설치, A/S
◐ 각종 사찰 불사 및 event 대행

■사찰 이정표
- 스텐레스 재질로 반영구적인 수명
- 현대적 감각의 디자인 - 가격 저렴
- 녹슬거나 칠이 벗겨지지 않음
- 자체 제작공장 보유 - 신속정확 시공
- 허가 대행 및 A/S 철저

■사찰연혁판
- 스텐레스 재질과 깔끔한 디자인으로 방문객에 대한 사찰연혁을 정확히 전달

■전주용 간판 ■게시판 ■현수막
■목간판 ■난간대 공사
■휀스공사(울타리공사)
■각종 event 대행
- 아크릴판, 상패, 불사, 각종행사 등

태영산업
서울시 중랑구 신내동 335번지
TEL:02-433-9544 FAX:02-433-9543 H.P:019-278-1119
이 태 영 합장

♣ 사찰이정표 건설교통부 지침 규격으로 제작하여 드립니다.

♣ 전주용 간판 ♣ 사찰 연혁 게시판 ♣ 화재안전 포맥

사찰화재 방지용 포맥스를 제작하여 본사 작업 사찰은 무료로 드립니다.
- 규격 40cm × 10cm

참배후 촛불을 꼭 꺼주시기 바랍니다.